



불평등 사회의 생태적 전환을 위한 잠언의 지혜

김순영(비블로스성경인문학연구소)

1. 들어가는 말

점점 더 뜨거워지는 지구와 생태계 파괴의 위협 속에서 위기의 심각성은 날로 고조되고 있다. 사회학자 울리히 벡(Ulrich Beck)은 기후 위기를 사회적 관계의 변화로 인식했다. 기후 변화와 사회적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심각하게 고려하면서 기후 위기가 가난한 자와 부자, 중심과 변두리라는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보았다.¹ 이러한 경제적 불균형의 대표적 사례가 플랫폼 노동이다. 이것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다. 플랫폼 노동은 기존의 경제활동 방식을 바꿔놓았고, 우리 곁의 '투명 노동자'를 더

1 조영호, "기후 위기, 윤리 그리고 교회", 『생태 위기와 기독교』 비블로스성경인문학시리즈 2 (파주: 한국학술정보, 2021), 50에서 재인용.

많이 양산하는 중이다. ‘투명 노동’이라는 신조어는 20세기 급진적 사상이 이반 일리치의 ‘그림자 노동’²을 연상시킨다. 둘은 정확한 의미상의 차이는 있으나 억압적 차별이 핵심이라는 측면에서 같다. 비대면의 투명 노동 방식은 생명을 위협하는 현상이 되었고, 기업과 노동 생태계의 불공정 분배는 경제적 양극화라는 사회 위기를 초래했다. 처참한 노동 현실 곁에서 사람들은 생태 위기 문제와 함께 새로운 표준을 말하지만, 정확한 실체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경제적 불균형으로 인한 불평등 사회를 향해 성서는 무엇으로 응답할 수 있는가? 이른바 ‘위협사회’의 현실을 직시하고 모두가 서로서로 연결된 존재로서 공존하는 생태적 지혜의 삶의 방식을 구약 잠언의 옛 지혜에서 탐색하고자 한다.

이 논제는 생태학이 자연 생태계만이 아니라 사회와 문화 모든 존재 사이의 상호 연결성 속에서 생태적인 총체를 구성한다는 생태 신학자 레오나르도 보프(Leonardo Boff)의 제언에 대한 공감에서 시작되었다. 보프는 1993년 생태학을 모든 인간적 실천과 지식을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재조명했다. 이를 위해 개별 학문 이름 앞에 생태(eco)를 붙여 생태적 불균형을 가져오는 지식 자체를 재구성하는 방식과 그 필요성을 제기했다.³ 인간은 노동과 돌봄의 형태로 세상에 자리할 때만 인간일 수 있고, 노동을 통해 창조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이것이 보프의 생태학적 시각이다.⁴ 이와 비슷하게 샬리 맥페이그(Sallie McFague)는 생태학적 지식을 경제 법칙에 관한 지식으로서 지구의 모든 거주자들이 함께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삶을 배우는 것으로 정의했다. 한마

2 이반 일리치, 『그림자 노동』 노승영 옮김 (서울: 사월의 책, 2015)을 참고하라. 원제는 Ivan Illich, *Shadow Work* (London: Marion Boyars, 1981). 이반 일리치는 산업 경제의 가려진 측면 ‘무급 노동’, 곧 가사 노동, 장보기, 직장 통근, 강요된 일을 위한 준비, 어쩔 수 없는 소비로 인한 스트레스 등 수많은 활동에 이르기까지 저임금이나 실업을 의미하지 않는 특이한 형태의 예측을 논했다.

3 레오나르도 보프, 『생태신학』 김향섭 옮김 (서울: 카톨릭출판사, 2013), 23-27. 원제는 Leonardo Boff, *Ecologia Mundlalizção Espiritualidade* (São Paulo: Editora Atica, 1993).

4 보프, 『생태신학』, 73.

디오 생태학은 삶과 죽음에 관한 것이고, 생존을 위한 기초지식이다.⁵ 인류에게 생존 자체보다 더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없다.

기후난민까지 발생하는 오늘의 지구 현실에서 기독교는 올바른 생태 관계 정립과 “생태 정의”⁶를 위한 사회적 책임에서 도피할 수 없다. 때문에 기독교 신학은 위험사회에 응답하고 생태 정의 실현을 위해 함께 고군분투하면서 생태적 전환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구약 지혜문학을 대표하는 잠언에서 불공정한 경제활동에 기인한 가난의 현실성을 진단하고, 선별한 개별 잠언들을 생태적 전환을 위한 각성과 대안으로 제시할 것이다. 물론 구약의 잠언은 생태적 경제와 사회에 대한 구체적 적용을 조직적이고 직접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나 군더더기 없는 간결한 문장은 자연 질서 심층에 흐르는 원칙과 인간 삶의 현실을 꿰뚫는 지혜의 보고다. “구약의 지혜는 자연과 경쟁하며 정복하거나 초월하려는 자세가 아니라 자연계 질서에 맞추어 살아가는 삶의 원리로서 현실에 관한 특정한 태도를 반영한다.”⁷ 이처럼 잠언 지혜는 보프의 사회 생태학과 통한다. 이것은 노동과 공생, 친교, 형제애, 정의, 연대성으로 연합하는 지구 공동체의 균형을 목표로하며, 생태적 윤리는 “우주적 연민의 윤리”이다.⁸ 또한 사회 생태학의 관점은 맥페이그가 제시한 생태적 경제학의 관점과 지구 정의를 위한 지구성서프로젝트(The

5 샬리 맥페이그, 『기후변화와 신학의 재구성』 김준우 옮김 (서울: 한국기독교연구소, 2008), 83. 원제는 Sallie McFague, *A New Climate for Theology: God, and the World, and the Global Warming* (Minneapolis: Fortress, 2008). 맥페이그는 집을 뜻하는 그리스어 ‘오이코스’가 경제학(economics), 생태학(ecology), 일체성(ecumenicity)의 어원임을 제시하며 경제학과 생태학 사이의 본질적인 연결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구의 모든 식구들의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분배를 강조한다.

6 “생태정의”(eco-justice)는 지구 공동체에서 동료와 피해자 등 다른 사람들과의 연대 및 다양한 창조에 대한 깊은 존중을 반영한다는 의미다. 이것은 미국 윤리학자 디터 헤셀(Dieter Hessel)의 정의를 수용한 것이며, 한마디로 생태정의는 생태계 전체와 사회 정의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된 충분한 논의는 Christopher Lind, “Ecojustice: What is it and Why Does It Matter?”, in Synod of the Diocese of Niagara (2007), 1-18을 보라.

7 김순영, 『일상의 신학, 전도서』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9), 23.

8 보프, 『생태신학』, 43-53.

Earth Bible Project)의 관점과 상통한다. 특히 1998년 미국성서학회(SBL)에서 검토된 여섯 가지 생태 정의 원칙들 중 “상호연결”(interconnectedness)⁹ 원칙과 호응한다.

잠언의 목적 중 하나는 정의, 공의, 공평을 꽃피우기 위함이다(1:3). 구약의 지혜는 창조질서, 곧 자연의 순리에 따라 도덕적인 올바름으로 채워가는 삶을 하나님 백성의 임무로 제시한다. 이 맥락에서 논제를 위해 선별한 잠언 교훈들은 경제적 허약함에서 비롯된 사회적 무능력의 당혹스러움과 가난의 실상을 외면하지 않고 만연된 불의를 꼬집는가하면(잠 13:23) 성장과 번영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인다(잠 3:9-10; 10:22). 그러나 동시에 과도하게 집중된 부와 극단적 가난의 위험성을 함께 다룬다(잠 30:8-9). 이 잠언들은 우리 시대의 공정과 정의 없는 자본 확장과 ‘노동 가격’을 낮추는 노동 생태계의 불평등과 이로 인한 소득 양극화의 격차와 “노동의 배신”이라는 역설을 되새기게 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생태 위기로 가속화되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을 창조질서를 배반하는 생태 정의 파괴와 역행으로 인식하고, 잠언의 지혜를 생태적 전환을 위한 대안적인 응답으로 제안한다.

9 지구성서프로젝트는 1996년에 시작되었고 당시 노만 하벨은 이것을 생태 위기에 대한 공헌의 요소로서 프로젝트를 위한 추진력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밝혔다. Norman Habel, “Guiding Ecojustice Principles”, *Spiritual Horizons* 11 (2016), 92-109; Norman Habel, “The earth Bible Project”, *Journal of Religion, Nature & the Environment* 99 (1998), 123; 생태 신학의 출발과 지구성서프로젝트와 생태학적인 해석학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Ernst Conradie, “Toward an Ecological Biblical Hermeneutics: A Review Essay on the Earth Bible Project,” *Scriptura* 85 (2004), 123-135을 참고하라. 여기서 “지구”라는 용어는 우리가 지구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생명 시스템이다. 나머지 다섯 가지는 내재적 가치, 목소리, 목적, 상호 관리자, 저항의 원칙에 따라 불의에 저항하고 다양한 지구공동체와 파트너로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생태 정의를 파괴하는 삶의 맥락들

1) 공정한 경제활동과 참여 문제

구약 잠언에는 상거래 정의와 경제활동 관련한 금언들이 있다.¹⁰ 그중 몇 가지는 공정한 경제활동을 촉구하면서 소비자의 윤리적 태도까지 문제 삼는다. 이와 관련된 경구들 중에는 무차별적인 시장경제와 자본가의 횡포, 그리고 금융자본의 장난질과 불공정을 질타하는 현실 각성을 위한 지혜 교훈이 된다. 첫째, 잠언 지혜는 공정하지 않고 속이는 행위와 공평함을 비교하여 공정한 경제활동을 촉구한다.

속이는 저울은 야웨의 역겨움이지만,
공평한 추는 그의 기쁨이다(11:1).

고대 사회에서 저울은 공동체가 수립한 기준으로서 상호 신뢰를 유지하는 척도다. 공정한 거래는 공정한 저울에 의해 입증된다. 1절의 מִשְׁכָּלֵי (모스나임/저울)은 단어 자체에 ‘균형’과 ‘평균’을 함축하고 있다(사 40:12, “막대 저울”). 그리고 “속이는 저울”¹¹은 속임 그 자체로서 타인에게 해를 입히기 때문에 ‘야웨의 역겨움’ (“여호와가 미워하시나”, 개역개정)이 된다. 상대방을 속여 해를 입히는 행위는 공동체의 균형을 깨뜨린다. 따라서 속이는 저울은 사회적인 문제이면서 신학적인 문제다. 그러면 ‘야웨의 역겨움’ (תִּקְוַת יְהוָה, 참고.

10 한동구는 경제활동에 관한 구절들을 잠언에서 찾아 분류하고(전체에 157절), 부의 분배 및 공정성 문제를 다뤘다. 한동구, “잠언의 지혜신학에 반영된 ‘공정한 사회의 이념’”, 『구약논단』 41 (2011), 12-33.

11 מִשְׁכָּלֵי מִשְׁכָּלֵי (모스네 미르마/속이는 저울)에서 מִשְׁכָּלֵי는 사기, 속임, 거짓말, 책략이라는 뜻을 포함하는 명사다. 이 때문인지 왈키는 이것을 설명하면서 해를 입히기 위해 희생자를 속이려는 악한 밀그림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한다. Bruce Waltke, *The Book of Proverbs: Chapters 1-15* (NICOT; Grand Rapids: Eerdmans, 2004), 482.

20:23)¹²이 함축하는 바는 무엇인가? 공정한 저울이 야웨께 속한 것이듯(16:11), 속이는 저울은 삶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경제정의의 무너뜨리는 반역행위로서 비난받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결같지 않은 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¹³ 역시 야웨의 역겨움이다(20:10). 저울 “추”를 뜻하는 אֵבֶן(에벤/돌)과 “되”를 뜻하는 אֵפָה(에파)를 속이고 바꿔치기하는 것은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정한 상거래를 짓밟는 행위다.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 발의된 레위기 법에 명시되었고, 일상의 거룩함을 저버리는 정의롭지 못한 행위로서 비난받는다(레 19:35-36).

무엇보다 ‘야웨의 역겨움’은 구약 전체를 통틀어 잠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표현이다(3:32; 6:16; 11:1, 20; 12:22; 15:8, 9, 26; 16:5; 17:15; 20:10, 23). 잠언 다음으로 빈도수가 높은 신명기 본문에서는 우상숭배와 경제적인 불의를 문제삼을 때 사용된다(신 7:25; 12:31; 17:1; 18:12; 22:5; 23:18; 25:16; 27:15). 이것은 공정하지 못한 경제활동이 우상숭배만큼 심각한 문제임을 반증한다. 이 때문에 예언자도 악한 의도를 품고 상대방을 속여 희생자 만드는 행위를 심각하게 다뤘다. 대표적으로 기원전 8세기 미가 예언자는 불의한 재물을 고발하며 부정한 저울과 거짓된 추를 맹비난했다(미 6:10-11).

반대로 ‘공평한 추’는 야웨의 기쁨이다(11:1b). ‘공평한 추’를 뜻하는 אֵבֶן שְׁלֵמָה(에벤 쉘레마/완전한 돌)는 부족하지 않은 ‘정확한 무게’ 단위를 일컫는다. 당시 상거래에서 크고 작은 돌은 무게를 계량하는 도구였다. 그런데 상인들 가운데 두 종류(큰 것과 작은 것)의 저울추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무게를 속였던 것 같다.¹⁴ 이 때문에 신명기 가르침은 계량 단위를 속이는 행위

12 어떤 사물이나 행위에 대해 혐오, 중요, 싫음을 뜻하는 אֲבֵרָה는 구약전체에서 112회 사용되는데, 에스겔서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다.
 13 이것을 직역하면 ‘돌 하나에는 돌 하나, 한 에파에는 한 에파’ אֵבֶן אֵבֶן אֵפָה אֵפָה이다. “되”로 번역된 ‘한 에파’는 21-22리터의 양이다.
 14 כִּסִּים(키스/주머니)는 상인들이 도량형 기구를 담은 주머니 또는 가방이다(HALOT 3759). 이때 판매자

를 엄격히 금지할 뿐 아니라 중대한 죄로 간주한다(신 25:13-16; 참고. 암 8:5). 따라서 야웨의 역겨움과 반의적 평행관계를 이루는 야웨의 ‘기쁨’, 곧 **יִצְחָק**(라 촌/바람, 소원)은 공평하고 공정한 거래에 있다. 이것은 야웨의 뜻이지만, 명령 형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금언은 독자가 자발적으로 경제적인 올바름을 선택하도록 유도한다. 이렇듯 “생태학과 경제학은 분명한 파트너”¹⁵라는 생태학의 관점에서 공정한 교환 가치는 생태 정의를 구현하는 삶이다.

둘째, 야웨는 공정성을 유지하는 도덕적 질서의 옹호자다. 잠언은 공평한 저울 제작과 저울추로 사용되는 모든 돌을 여호와가 만드신 것으로 제시하여 경제적인 공정성을 신학적인 문제로 접근한다.

접시저울과 공평한 저울은 야웨께 속한 것이요

주머니의 모든 돌들도 그가 만드신 것이다(잠 16:11)

“접시저울”로 알려진 눈금을 지시하는 바늘 있는 저울 **מִשְׁכָּל**(펠레스/바늘 저울, 참조. 사 40:12)와 **מִשְׁכָּל מִזְנֵי**(모즈네 미쉬파트/공평한 저울)는 보통 ‘막대 저울’을 뜻하는데 둘 다 야웨께 속한 영역이다. 그리고 ‘주머니의 모든 돌들’, 곧 “주머니 속의 저울추”(개역개정)는 야웨가 만드신 것으로서 계량 단위의 공평을 신적인 공정성으로 다뤘다. 곧 야웨는 정의롭고 합법적인 저울 배후에 계시며, 그것을 만드시고 소유하신 분으로 제시되었다. 이 교훈도 11장 1절처럼 길이, 무게,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않도록 명시한 레위기 가르침을 반영한다(레 19:35-36). 이 때문에 왈키는 야웨가 영원하고 질서정연한 그의 왕국에서 정의의 수단을 창설하셨고 유지하신다고 보았다.¹⁶ 따라서 ‘주머니

의 이득을 위한 저울 조작이 가능했고, 구매자를 속일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한 설명은 Tremper Longman III, *Proverbs* (BCOT;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6), 332을 보라.

15 맥페이그, 『기후변화와 신학의 재구성』, 83.

의 모든 돌들' (כָּל-אֲבֵנֵי-כִּסֵּי)도 제작자가 아웨시니¹⁷ 저울추를 속이는 것은 돌을 제작하신 창조자를 속이는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정확한 무게 측정은 신적 정의와 관련된 엄중한 문제다. 즉, 정확한 계량은 공정한 거래를 고무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정의가 아웨께 속한 신적 정의의 영역임을 명시한다.

셋째, 잠언 지혜는 상거래에서 판매자만이 아니라 소비자의 정직성을 문제 삼는다. 이는 올바른 상거래 활성화를 교훈하고, 구매자의 정직하지 않은 마음을 비난한다.

구매자가 “나쁘다, 나쁘다” 말하지만,
떠나서는 자기를 위해 자랑한다(20:14)

판매자의 정의롭지 못한 속이는 저울처럼, 구매자의 정직하지 못한 속마음도 문제다. 이 금언은 소비자의 이중적인 마음과 공정하지 못한 정신을 꾸짖으면서 물건과 노동의 가치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암묵적으로 강조한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소비자의 양심을 각성시켜 교환경제 그 이상의 가치를 실현하지 않는 정신에 균열을 일으킨다. 이를테면, 백화점 진열대의 고가의 물건 값을 깎지 않으면서 길거리 좌판을 펼쳐놓은 상인에게 덤을 요구하거나 물건 값을 깎는 경우다. 이처럼 정당한 가격을 지불받지 못한 상인과 불공정한 구매자의 무더진 양심을 찌르는 잠언처럼, 우리 시대 시인의 목소리도 지혜 교훈이 된다.

16 Waltke, *The Book of Proverbs: Chapters 15-31*, 19.

17 고대 왕정 사회에서 저울추는 왕이 정한 규칙인 ‘왕의 돌로’ (מִלְּבַיִת הַמֶּלֶךְ/베에벤 함멜렉) 무게를 측정했던 것 같다(삼하14:26). 당시 표준화된 무게와 측정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한 합법적인 인가가 필요했으며, 사무엘기 저자는 압살롬의 외모를 언급하면서 압살롬의 머리털의 무게를 달아볼 때 왕의 저울을 사용했다고 기록한다(삼하 14:26).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겨울 밤 거리에서 굴 몇 개 놓고/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굴 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 주겠
다//

...추위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¹⁸

시인의 마음이 이기적인 소비자의 행동을 꾸짖은 옛 지혜 정신과 만난다. 이렇게 잠언 20장 14절의 지혜는 공정하지 않은 구매자의 무더진 양심을 꾸짖는다. 또한 제값을 치르지 않고 생산자를 가난으로 몰아가는 경제활동에 제동을 걸어 적절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받는 공정성을 옹호한다. 이것을 좀 더 확대 적용하면, 거대자본의 경쟁에서 떠밀려 생계 안정을 확보하지 못한 소자본 생산자들과 노동자들(특히 저개발국가들)을 위한 공정무역은 “경제정의”¹⁹ 일환으로서 생태 정의와 구약의 지혜 정신에 부합한다. 무엇보다 현대 사회의 불공정성은 고대와 비교도 안 될 만큼 무제한적인 탐욕과 소비주의로 특징 지워진다. 이것은 자원 고갈 문제로 끝나지 않고, 불공정 거래를 조장하며 생태 정의 문제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제한받지 않는 생산과 소비는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켜 기후 위기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약자를 더 큰 고통 속으로 밀어 넣는다. 보프가 말하는 사회 생태학의 과제가 생태계와 상호 작용하는 사회 체계를 연구하는 것인 만큼²⁰ 정의는 지구

18 정호승, 『슬픔이 기쁨에게』 창비시선 19 (서울: 창비, 2014)

19 이 경제정의에 대한 설명은 세계개혁교회연맹이 발간한 총회준비자료 중 하나인 “열개의 바다를 건너면서”(Crossing Ten Seas)에서 다룬 간략한 해설이다. 이밖에도 창조, 성, 정의, 평화, 다양성의 존중, 포괄적 참여, 치유에 대한 항목을 다룬다. 박성원, “경제와 생태 정의를 위한 계약-세계개혁교회연맹(WARC)의 경제정의를 위한 신앙고백을 중심으로”, 236-7을 참고.

20 보프, 『생태신학』, 46.

전체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제 모든 정의는 생태적이다.”²¹

2) 성실한 노동은 부유함을 약속하는가?

열심히 일하면 경제적인 풍요를 보장받는가? 현대인에게 성실한 노동과 경제적인 부유함의 인과관계는 회의적이다. 왜냐하면, 산업 경제구조에서 약탈적이고 착취적인 노동에 시달리면서 적절한 임금을 노동의 대가로 지불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이다. “열심히 일하셨나요? 더 가난해졌습니다.”²² 이 말은 저임금의 노동을 따끔하게 질타한다. 정의(justice)는 억울함과 불평등을 문제 삼는다. 정의는 하나님과 인간관계 측면에서 신학적 문제이고 동시에 건강하고 바람직한 사회를 위한 사회학적인 문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21세기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성장과 코로나 대유행이 낳은 ‘플랫폼 노동’은 정확한 예다. 이것은 코로나 대유행과 함께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우리 곁의 일상이 되었지만, 노동현장은 생명을 위협하는 곳이 되었다.²³ 국가인권위원회의에서 제공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플랫폼 기업 중심의 노동은 자동화된 알고리즘 이면에 숨겨진 노동으로 은폐된다. 플랫폼에서 일하는 노동 종사자들은(가사 돌봄, 플랫폼 택배, 대리운전, 음식배달, 택시운전, 웹툰 웹소설 등) 평균 주 5일, 하루 8시간을 넘게 일한다. 이 업종의 종사자들에게 가장 큰 위협은 노동과정이 통제당하고 경쟁을 유도당하는 방식이지만, 기술과 자본을 가진 플랫폼 기업의 책임은 없다.²⁴ 이

21 Walter Wink, “Ecobible: The Bible and Ecojustice,” *Theology Today* 49 (1993): 465-477.

22 이 말은 바버라 에런라이크의 책, 『노동의 배신』 최희본 옮김 (서울: 부키, 2012)에 실린 문장이다. 원제는 Babara Ehrenreich, *Nickel and Dimed* (New York: Picador, 2001). 이것은 에런라이크가 1997년 <하퍼스 매거진>에 ‘빈곤’을 주제로 썼던 글의 제목이다.

23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요가 증폭된 배달 플랫폼 종사자, 즉 ‘배달 노동자’ 혹은 ‘호출 노동자’라 불리는 이들이 있다. ‘일하고 싶을 때 자유롭게 일하고, 일한 만큼 수입을 보장’ 받는다고 선전되는 배달 플랫폼 노동자들은 오늘도 일감(call)을 얻기 위해 죽음의 질주를 한다. 이들은 임금이 아닌 건당 수수료(평균 2960.6원)를 받기 때문에 말 그대로 목숨 걸고 일한다(<http://www.pressian.com>).

들의 저임금과 노동의 위험성은 이미 공론화되었다.

그렇기에 디지털 자본주의 시대의 노동자는 생존을 위해 새로운 착취구조와 노동과정에서의 통제와 감시 및 규율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또 다른 형태로 노동자를 속박하는 굴레가 되고 있다. 즉 디지털 시대의 대표적 노동형태인 플랫폼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힘과 의지로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 독립계약자 혹은 개인사업자라는 미명하에 노동자성이 제거되는 ‘탈노동자화’의 벼랑에 내몰린 것이다.²⁵

이처럼 플랫폼 노동은 장시간 저임금이라는 문제와 성별 임금 격차 등의 전통적인 노동문제를 안고 있다.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기준에 따르면, 비정규직 비율이 870만 명(44.3%)에 이른다.²⁶ 노동자 개인이 자본가나 사용자를 상대로 투쟁하는 것이 쉽지 않고, 노동 단결권조차 불평등한 상황에서 가난한 개인은 점점 위태로워진다. 이러한 불공정한 노동 현실과 생명을 경시하는 사회에 대해 구약의 지혜는 무엇으로 응답할 수 있는가? 가난과 빈곤 반대편에는 부유함이 있다. 그러면 잠언에서 노동은 가난을 해소하고 부유하게 하는 자연적인 원천으로 제시하는가? 잠언 지혜는 이에 대해 분명히 직언한다.

24 국가인권위원회, 「플랫폼노동 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9년 11월 발간된 인구용역보고서 참고. 이들은 무상의 추가 노동을 하거나 폭언이나 폭행, 인격적인 무시를 당하는 등 인권을 침해당하는 일들이 많았다. 플랫폼 노동인구가 50만 명(10명 중 1명) 정도이고, 40대 이상의 가장들이 80% 이상 플랫폼 노동소득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25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121108564659544\(프레시안\)](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121108564659544(프레시안))

26 2016년 8월 기준 한국비정규직 센터 분석에서 정규직은 1089만 명(55.5%)이다. 정부 분석은 정규직 1318만 명(67.25%) 비정규직은 644만명(32.8%), 한노사연은 비정규직을 874만명(44.5%)으로 제시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78609.html

가난한 자들의 경작지가 많은 양식을 생산하지만,
 불의할 때 **자산**이 강탈당한다(13:23).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13:23, 개역개정)
 가난한 사람이 경작한 밭에서는 많은 소출이 날 수도 있으나,
 불의가 판을 치면 그에게 돌아갈 **몫**이 없다(13:23, 새번역).

〈개역개정〉 본문의 둘째 소절이 모호하다.²⁷ “**몫**”(새번역)이나 “**가산**”(개역 개정)으로 번역된 **כֶּסֶף**(예쉬/물질, 실체)는 첫 소절의 ‘많은 양식’과 평행하여 경 작지의 풍부한 소출이 ‘**자산**’이 됨을 뜻한다. 이 경구는 두 가지 해석이 가 능하다. 첫째, 가난한 자가 충분한 양식으로 풍요로워도 정의가 실행되지 않 으면, 불의로 인해 자산을 빼앗기는 경우다. 이것은 정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 직시로서 불공정한 현실 고발인 셈이다. 둘째, 가난한 자들도 ‘불 법적이거나 정의롭지 않으면’ 순식간에 자산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로 해 석된다. 그러나 문자적 의미와 시적 평행관계를 고려하면, 가난한 자들이 ‘**불의에 의해**’(כֶּסֶף לְבַיִת אֲדָמָה), 곧 공평의 부재로 인해 강탈당하기 쉬운 존재라는 현실을 일깨운다. 이는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행위가 발생할 때, 희생을 치르 는 이들이 가난한 자들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성실한 노동과 경제적 부유함 이 예외 없는 법칙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명제일 뿐임을 역설 한다. 이러한 현실은 경제 불의를 조장하고 앞서 밝힌 생태 정의 원칙 중에

27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개역개정, 13:23b)는 문자적으로 ‘정의롭지 않음 으로 인해 자산이 강탈당한다’는 말이다. כֶּסֶף(니스페/강탈당한다)는 ‘빼앗다’, ‘탈취하다’, ‘사라지 다’, ‘뺏아채다’라는 ‘사과’ 동사의 수동형태다. 적군에게 순식간에 폐하거나 휩쓸려 털리는 이미 지를 반영한다(참고, 대산21:12; 삼하 24:13). 그러나 시행의 모호한 측면 때문에 고대역본이나 현대어 역본들이 다양하게 번역한다. 롤란드 머피(Roland Murphy)는 시행의 연관성을 의심하면서 본문이 손 상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롤란드 머피, 『잠언』 박문재 옮김 (WBC; 서울: 솔로몬, 2001), 173. 원제는 Roland Murphy, *Proverbs* (WBC; Nashville: Thomas Nelson, 1998).

서 상호연결성을 배제한다. 이는 곧 생태 정의를 파괴하는 것이며 공동선 추구의 열정을 좌절시킨다.

3) 게으름과 가난의 관계

가난은 게으름의 결과인가? 잠언은 게으름을 가난의 원인으로 꼽는다. 잠언은 ‘게으름뱅이’에 대한 교훈을 여러 차례 반복하고 꾸짖는다(10:4, 26; 15:19; 19:24; 20:4; 21:25; 22:13; 24:30-34; 26:13-16; 30:24-28). 이러한 반복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대중화된 지혜였음을 반증하는 좋은 예다. 제임스 크렌쇼(James Crenshaw)에 따르면, 고대 이스라엘 지혜자들은 우주에 근본적인 질서가 감추어져 있다고 믿었고, 이 질서의 원리는 자연과 인간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생각했다. 우주 질서는 하나님 은총의 표지로서 하나님 뜻에 종속된 것이며,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항상 최종적 판단을 내린다고 믿었다. 이것을 교훈하기 위해 이스라엘 현자들은 동식물들의 자연계를 섬세하게 관찰하여 세계가 조화로운 우주라고 확신했다.²⁸ 실례로서 감독관이 필요 없는 개미들의 근면성은 보편적 지혜 교훈의 자료가 되었다.

개미에게 가라, 게으른 자여! 그녀의 길과 지혜를 보라(6:6)

그녀에게는 두령이나 감독자나 통치자도 없다(6:7)

그녀는 여름 동안 양식을 준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거둔다(6:8).

게으른 자여 너는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너는 언제 잠에서 일어나겠느냐(6:9)

좀 더 자자, 좀 더 쉼자, 좀 더 눕기 위해 손을 포개면(6:10)²⁹

28 제임스 L. 크렌쇼, 『구약지혜문학의 이해』 강성열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89-90. 원제는 James L. Chrenshaw, *Old Testament Wisdom: an Introduction*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81).

29 매우 간결한 명사절 시행이다. 문자적으로, ‘약간의 잠, 약간의 쉼, 눕기 위해 약간 포개 두 손’(מְעַט שְׁנוּת מְעַט שְׁנוּת מְעַט הַנְּנוּמוֹת מְעַט הַנְּנוּמוֹת מְעַט הַנְּנוּמוֹת מְעַט הַנְּנוּמוֹת)이다. 단어를 최소화하는 시행의 간결성과 ‘약간’을

네 가난이 걷는 자처럼 들어오며 네 궁핍이 군사처럼 온다(6:11).

고대 지혜자에게 개미는 부지런함과 지혜의 대명사다. 롤란드 머피(Roland E. Murphy)의 말대로 동물들은 지혜 교훈의 일부였고, 사람은 동물에게서 배움을 얻었다(욥 12:7; 잠 30:24-31).³⁰ 지혜자는 자연 생태계 질서를 반영하는 동물의 독특한 유형들을 관찰하고 인간 삶에 적용했다. 동물의 살아가는 방식이나 특성과 습관을 관찰한 지혜자는 지구상에서 아주 작은 생명체인 개미의 부지런함을 묘사했다. 여성 명사 개미 ‘그녀의 길’(רַרְרִיָּה), 곧 개미의 삶의 방식을 보라고 한다(6:6). 개미에게는 קָצִין(카진/두령), שֹׁטֵר(쇼테르/감독자), מְנַשֵּׁל(모셀/통치자)이 없다(6:7). 여름 동안 먹거리를 준비하고 추수 때에 양식을 모아들이는 개미는(6:8) 땅에 사는 아주 작은 동물이지만, 그 비범함이 남 다르다. 자연 세계의 작은 동물이 인간보다 뛰어난 존재처럼 보인다. 이러한 묘사는 부지런함을 자극하면서 동시에 게으른 사람을 책망한다.

지혜자는 몰아붙이기도 한다. 거기에 언제까지 누워있을 것인가, 언제 네 잠자리에서 일어날 것인가?(6:9) 이후 희극적이고 풍자적인 맛까지 가미된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6:10, 개역개정)는 말은 어리석은 자의 마음을 꿰뚫어 본 것처럼 재미와 조롱을 섞은 예리한 경고다. 게으른 자의 ‘조금 더’ 원하는 잠이 만만치 않은 위협으로 치달는다. 급기야 극단적 가난의 공포를 자극한다. 게으른 자에게 ‘가난’이 ‘걷는 자처럼’(כְּמַהְלֵךְ; “강도같이”, 개역개정) 들어오고, 네 궁핍이 ‘군사처럼’(כְּאִשׁ מִלְחָמָה) 온다(6:11)³¹는 말은 마치 가난을 방랑자(“a vagabond”, NAS)나 무장한 사람처럼 인

세 번 반복한 것에서 수사학적인 의도성이 느껴진다.

30 롤란드 머피, 『잠언』 박문재 옮김 (WBC: 서울: 2001), 88. 원제는 Roland E. Murphy, *Proverbs* (WBC: Waco: Word Books, 1998).

31 “강도”(개역개정)로 번역된 כְּמַהְלֵךְ는 문자적으로 ‘걷는 자’이지만, “군사”로 번역된 כְּאִשׁ מִלְחָמָה(이쉬 마겐/방패의 남자)은 시적 평행관계에 따라 동의적인 개념이다.

격화시켜 희화한 표현이다. 더군다나 많은 잠이 아니라 ‘조금 더’(טַמְּ) 원하는 잠의 결과를 저항할 수 없는 힘처럼 과장하여 씩쓸함과 재미를 동시에 전달한다.

이밖에도 잠을 좋아하는 것은 미련한 사람의 게으름으로 취급된다(11:29). 그런가하면 잠자는 것을 좋아하지 말고, 가난하지 않도록 눈을 뜨면 양식이 충분할 것이라는(20:13) 약속도 더해진다. 비슷한 맥락에서 자기 땅을 경작하는 자는 먹거리가 풍성하지만, 공허한 것들을 추구하는 자는 지혜 없는 자로 규정된다(12:11).³² 이런 교훈들의 공통점은 성실한 노동을 격려하기 위함이다. 또한 어떤 종류든 고된 노동이나 온갖 고통에는 유익이 따르지만, 노동하지 않으면서 말만 하는 것은 궁핍하게 될 뿐이라고 경고한다(14:23). 왜냐하면, 재물은 부지런함의 결과이기 때문이다(12:27). 이처럼 부지런한 수고를 격려하고 나태한 삶을 멀리하는 것은 고대 사회의 보편적인 지혜였다.

그러나 게으름과 가난, 부지런함과 부에 대한 고대의 관점은 현대 사회에서 비판적인 적용이 요구된다. 현대사회 시장경제의 불안감에서 발생하는 약탈적인 경쟁과 체제에서 부지런함이 부유함을 약속하는가? 게걸스럽게 큰 것이 작은 것을 먹어치우는 탐욕이 멈추지 않고, 큰 자본을 가진 자가 작은 자본을 잠식하는 불의한 구도에서 성실한 노동에 대한 공정한 대가는 가능한가? 열심히 일해도 가난해지는 노동의 배신과 비극의 현장은 우리 곁에 있다. 반면에 주식과 부동산, 암호화 화폐 등은 투자자산의 하나로 자리매김 하면서 건전한 노동의 가치를 하락시켜 마음을 허탈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

32 “방탕한 것”(개역개정)으로 번역된 טַמְּ(태킴/공허한 것들)은 ‘헛된 것들’, ‘가치 없는 것들’이다. 공허한 것들을 열렬히 쫓는 자의 어리석음을 비웃은 표현이다. 구약에서 가치 없는 것은 방탕하고 경박한 자들, 험잡꾼들을 일컫는다(참고, 사 9:4; 11:3; 신 32:47). ‘공허한’, ‘헛되다’를 뜻하는 형용사 טַמְּ의 명사적 용례다(BDB, 938). 한마디로 수단을 가리지 않고 부와 권력을 추구하는 험잡꾼이나 투기꾼이다. 이들과 동급으로 취급받는 “지혜 없는 자”(문자적으로 ‘마음이 결핍된 자’)는 성실하게 자기 땅을 경작하면서 양식을 얻는 사람과 정반대 부류의 사람이다.

도 한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직접 노동이 아닌 ‘불노’(不勞)의 이득을 추구하는 정신이 사회 깊숙이 자리 잡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지나친 기우일까? 그러면 오래된 옛 지혜 잠언은 성실한 노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난한 삶의 문제를 다루는가? 옛 지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해답을 제시하는가?

3. 불평등한 사회와 생태적 전환을 위한 제언

1) 가난한 자에게 더 혹독한 현실

현대사회는 자연과 인간 착취를 통해 부를 창출하는 경제를 축으로 구조화되어 있다.³³ 우리 사회는 불평등을 야기하는 권력 수단과 부당하게 분배하는 계급 사회 안에 살고, 이로 인해 고통 받는다. 리처드 클리포드(Richard J. Clifford)의 말처럼, 구약의 잠언은 개인을 안내하는 일이지 사회를 개혁하는 일은 아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삶의 리듬에 맞춰 세상에 적응하도록 돕는다.³⁴ 그럼에도 구약의 지혜는 비정한 현실 문제를 직시하여 삶의 대응능력을 준비시킨다. 예컨대,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진다(19:4). 이는 재물에 대한 현실적인 관점과 삶의 냉혹성에 대한 가감 없는 표현이다. 또한 비정한 사회를 살아가는 가난한 자의 곤경을 실재적으로 적시한다(14:20). 이처럼 의지할 곳 없는 가난의 비참함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현실 직시도 지혜의 한 축이다.

33 보프, 『생태신학』, 43-44.

34 리처드 클리포드, 『지혜서』 안근조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5), 43. 원제는 Richard J. Clifford, *The Wisdom Literature* (Nashville: Abingdon Press, 1998).

가난한 자의 모든 형제들도 그를 미워하는데
그의 친구도 그를 멀리한다.
따라가며 말하려 해도
그들이 없다(19:7).

이것은 가족, 친척, 친구들까지 돌봄과 사회적 연대의 책임과 상호 의존성을 외면하는 냉혹한 현실의 비애다. 또한 경제적인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 친구 관계가 결정되는 불행한 사회의 한 단면이다. 고대 지혜자들은 가난한 자에 대한 동정심 없는 현실의 냉혹함을 거침없이 솔직하게 표현하곤 했다(전 4:1; 5:8). 이러한 현실의 담론 생산자들, 곧 지혜 선생들이 관찰한 혹독한 세계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부자의 재산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들의 궁핍은 멸망이다(10:15)

이 경구역시 세상 물정과 가혹한 현실을 반영한다. 이것은 재산의 절대적 가치를 말한 것은 아니지만(11:28; 27:24), 확대받는 자들에게 위로 없는 현실 묘사이며 진실이다(참조. 전 4:1). 이것은 또한 부자의 안전과 극단적 가난의 비참함을 대조한 것이다. 잠언에서 말하는 부자에 대한 관점은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여 논외로 하겠다.³⁵ 한마디로 ‘가난한 자들의 궁핍’은 파멸 그 자체이며 공포다. 어니스트 루카스(Ernest C. Lucas)의 말처럼, 부자는 식량 가격이 상승해도 별 어려움 없이 대처할 능력이 있지만 가난한 사람은 굶주림에

35 잠언에서 말하는 부자에 대한 논의는 조용현, “도덕적 행위자로 기능하는 잠언의 ʼאִשְׁרָא(이שר/부자)”, 『구약논단』 74(2019), 108-135를 보라. 조용현은 잠언의 부자를 지혜보다 재물을 신뢰하고, 자신들의 이득만을 추구하며, 가난한 자를 억압하며, 도덕적인 교만을 드러내는 자들로 해설했다.

내몰리거나 어려움을 피하려다 사소한 범죄에 휘말릴 수 있다.³⁶ 이처럼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요새다. 예컨대, 부자들은 법적 소송을 제기해도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궁지에 몰렸을 때 돈으로 해결하니 아무 문제 없다. 이것은 부자 엘리트들이 주도하는 사회의 일그러진 단면이다.

모든 신학에는 그 맥락이 있다. 신학은 우리가 누군지, 어떤 장소 어떤 맥락을 전제한다. 이것은 기후변화를 비롯해 식량, 에너지, 소비주의 생활방식, 경제, 숲 관리 등등에 이르기까지 신학적인 문제라는 뜻이다.³⁷ 이에 걸맞게 1997년 세계개혁교회연맹(World Alliance of Reformed Churches)이 헝가리 테브레첸에서 발표한 “아크라 신앙고백”(Accra Confession)은 경제와 생태 위기에 대한 진일보한 발걸음을 보여주었다. 이 고백은 “경제 불의와 생태계 파괴에 대한 신앙 고백적 대응을 개시하는 신앙고백 과정”이라고 선언했으며, 하나님의 정의가 모든 삶의 영역에 나타나야 하며 향후 세계 갈등은 경제 불의를 통해 일어날 것을 예상했다.³⁸ 맥페이그는 경제적 문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를 기후 변화와 지속가능성을 질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³⁹ 그러나 경제적 불균형과 불평등은 생태 문제다.

그러면 무엇이 지구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좋은 것인가? 고대 사회에서도 과중한 이자로 재산 증식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는 무자비함으로 간주되었다(28:8). 예컨대, 부와 가난 문제에 집중한 잠언 28장은 부의 축적을

36 Ernest C. Lucas, *Proverbs* (Grand Rapids: Eerdmans, 2015), 93.

37 맥페이그, 『기후변화와 신학의 재구성』, 90.

38 세계개혁교회연맹(WARC)은 세계 110여개국의 세계연합기구다. WARC는 이후 세계교회협의회(WCC), 세계루터교연맹(LWF)과 함께 “경제와 창조세계의 정의를 위한 계약”을 발표했다. 이후 2010년 6월 미국 그랜드 래피즈 칼빈 신학교에서 모임을 갖고 세계 개혁교회 연맹(WARC)과 개혁교회연합회(REC) 합병으로 세계개혁교회협의회(World Communion of Reformed Churches)가 구성되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박성원, “경제와 생태정의를 위한 계약-세계개혁교회연맹(WARC)의 경제정의를 위한 신앙고백을 중심으로”, 『신학과 목회』 24 (2005), 231, 238을 보라.

39 맥페이그, 『기후변화와 신학의 재구성』, 141.

인간의 비정함과 불의로 연결한다(3, 6, 8, 11, 19, 20, 22, 25, 27절). 구약의 가르침이 자기 동족에게 이자 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처럼(출 22:25; 레 25:36-37; 신 23:19-20; 겔 18:8; 22:12), 높은 이자는 부당한 소득이다. 이것은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굶어모으는 것이며, 공흠을 저버린 잔혹 행위다. 그러나 잠언은 비정한 현실에서 윤리적 올바름을 굳건히 붙드는 것을 지혜로 여긴다. 이 때문에 ‘온전함’으로 걷는 가난한 자가 부자면서 비뚤어진 길들을 걷는 것보다 좋다고 한다(28:6). 즉 가난한 사람의 흠 없는 삶이 불의한 소득으로 자기 도취에 빠진 비정한 부자보다 낫다.

이처럼 잠언의 지혜는 부유함과 온전함이 짝이 될 수 없는 현실을 분명히 적시한다. 이와 같은 가난과 부의 대비는 과도한 물질적 탐욕으로 투사된 현실 세계에 저항을 촉구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무한 이윤 원리를 추구하고 과잉 생산과 소비를 조장하면서 인간과 자연의 생명력을 무시하고 착취하는 반 생태적 늪에 빠져 있다. 이러한 삶의 현실에서 옛 지혜 잠언은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형태의 사회를 원하는가?

2) 가난한 자의 존엄성과 인권 보호

잠언 지혜는 생명의 창조자이며 보존자이신 하나님과 인류의 동반자적 관계성을 명시하여 창조자의 영화로움과 연결 짓는다. 말하자면, 잠언은 누구도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가난 문제를 인간 존엄성 문제로 인식하고 비판적으로 다룬다.

가난한 사람을 확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다

궁핍한 사람에게 호의적인 자는 그를 영화롭게 하는 자다(14:31).

이 경구는 보프가 말한 ‘우주적 연민의 윤리’와 호응하는 지혜다. 가난

www.kci.go.kr

한 사람을 확대(억압, 착취)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자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로 간주된다. 보프의 말처럼, “오늘날 지구 심장에서 올라오는 억눌린 이들의 울부짖음을 누가 들어주는가?”⁴⁰ 다른 이의 목소리를 듣고, 존중하며, 차이를 수용하는 것은 생태적인 윤리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14장 31절은 궁핍한 사람에게 호의적으로 친절 베푸는 것을 창조자의 ‘영광’(כבוד)과 결합시킨다. 그리고 루카스의 말처럼, 가난한 사람을 확대하는 것과 ‘그를 만드신 분’(אלהים)을 멸시하는 것을 같은 수준으로 다루는 파격성은 구약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루카스는, 우리가 그들을 대우하는 방식이 창조자를 향한 우리 태도를 반영한다고 보았다.⁴¹ 마찬가지로 가난한 사람에게 호의적인 자, 곧 ‘은혜를 베푸는 자’(חסיד)는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מְבָרֵךְ)로서 더 높은 단계의 투신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창 33:5) 가난한 자를 대우하는 지혜는 신앙 지침이면서 생태적인 삶의 길이다. 이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이웃을 향한 연민이 같은 무게로 다뤄지는 파격성은 생태 위기로 가속화되는 불평등한 경제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길 아닌가?

지혜자들은,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분을 멸시하는 것으로(17:5a) 간주했다. 가난을 이유로 누구도 우습게 여기거나 비웃지 말라는 우회적인 경고다.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창 1:27-28)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따라서 (타인의) 곤경을 기뻐하는 자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로서 형벌을 피할 수 없다(17:5b). 이것은 특정 행동이 특정 결과로 직결되는 ‘행위-결과’ 원칙에 따라 작동하는 보응 원리처럼 제시되었다. 말하자면 언약, 예언, 지혜가 가르쳐 온 균형 관계, 곧 보상 원리로서 고대 근동 세계의

40 보프, 『생태신학』, 156.

41 Lucas, *Proverbs*, 116.

이른바 ‘공통신학’처럼⁴² 우리가 선택한 방침과 행위가 미래를 결정한다는 뜻이다. 그 밖의 가난한 자를 붙잡히 여기는 것은 야웨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갚아 주신다(19:17)는 교훈이나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않는 폭우 같다(28:3)⁴³는 경고도 마찬가지다. 땅의 곡식을 초토화하는 폭우에 빗대어 가난한 자 학대 행위를 비난하는 것도 고대 세계의 공통신학을 반영한다.

학대의 주체는 주로 부와 권력을 거머쥔 자들에 의해 발생한다. 하지만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 현실도 엄연히 존재한다. 이 때문에 지혜자들은 가난한 이들의 존엄성과 인권 유린이 없도록 조언했다.

가난한 자를 그가 가난하다고 탈취하지 말라

중꺾한 자를 성문에서 짓밟지 말라.

왜냐하면 야웨께서 그들을 신원하시기 때문이며

42 공통신학은 1952년 유대인 학자 모튼 스미스(Morton Smith)의 논문, “The Common Theology of the Ancient Near East”, *JBL* 71 (1952): 135-147에서 처음 다룬 것으로서 노만 고트발트(Norman Gottwald)가 이것을 이어받아 더 심층적으로 광범위하게 탐구했다. 스미스와 고트발트에 따르면 이 용어는 고대 근동에서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신학 주제다. 여기서 ‘공통’(common)이라는 표현은 이 신학이 고대 이스라엘과 구약성경에도 널리 공유되었음을 암시한다. 공통신학(또는 통속신학)을 규범적으로 표현한 책은 단언 신명기다. 신명기는 시내산 언약의 해설서로서 십계명을 중심에 두고 확장된 형태인데, 복과 저주에 대한 조건부 순종, ‘만일 ...하면 ... 될 것이다’는 당대 공유한 공통신학의 전형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예언서에서 죄를 기소하고 소송하고 선고하는 심판 담화에서 잘 드러난다(예컨대, 호4:1-3). 지혜서에서는 잠언의 격언들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공통신학은 언약, 예언, 지혜에서 다양하게 변주되어 새로운 시대와 환경에 열려있다. 이것과 관련하여 윌터 브루그만, 『하나님, 이웃, 제국: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동선 창조』 윤상필 옮김 (서울: 성서유니온, 2016), 155-228. 원제는 Walter Brueggemann, *God, Neighbor, Empire: The Excess of Divine Fidelity and the Command of Common Good* (Waco: Baylor University Press, 2016); 「구약신학의 틀 II: 고통의 포용」, 『기독교사상』 37 (1993): 114-130을 참고하라.

43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않는 폭우같이니라(잠 28:3, 개역개정)”에서 첫 번째 “가난한 자”는 מְבַרְכִּים(달림/가난한 자들)이고, 두 번째 “가난한 자”는 מְשֹׁרְרִים(계베르 라쉬/어떤 가난한 사람)이다. 가난한 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이 이상하다. 이 때문에 “가난한 자”를 ‘통치자’(ruler)로 수정 번역하기도 한다. 이처럼 본문을 수정하려는 시도들이 있지만, 가난한 사람이 줄어들어 부와 권력을 얻게 된 상황을 상상하면 가능하다.

그들을 강탈한 자들의 생명을 강탈하실 것이다(22:22-23)

위의 금언이 십계명처럼 절대 금지명령은 아니지만,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탈취와 압제를 금지한다(לֹא+청유형). 시대를 막론하고 가난한 자(לֵוִי)는 힘없고, 무력하고, 하찮고 귀찮은 존재로 여겨져 차별당하기 쉽다. 따라서 힘이나 우격다짐으로 가난한 자를 괴롭히고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자와 평행하는 궁핍한 자(עָנִי)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22b절)는 권고도 마찬가지다. 성문은 법정이 서는 공개적이고 공적인 장소다. 궁핍한 자는 삶의 필요를 채우지 못해 비참해진 사람이다. 이들은 도움을 구해도 변호해줄 사람이 없기 일쑤다.

사회적인 약자는 부자와 권력자들의 야만적인 부당 행위에 피해자로 전락하기 쉽다(암 2:6; 4:1; 5:12; 미 3:11). 따라서 그들의 희망을 꺾지 말아야 할 이유는 명확하다. ‘왜냐하면’ (כִּי) 야웨가 신원해주실 것이기 때문이다(23a절). ‘그가 신원해주신다’(יְרִיב יְרִיב)는 것은 야웨가 법정 소송을 위해 싸워주신다는 뜻이다. 아무도 변호해줄 사람 없는 약자들을 위해 야웨가 변호인처럼 억울함을 해결하신다는 희망적인 교훈이다. 그리고 가난한 자의 것을 강탈하는 것은 그의 전부를 빼앗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때문에 야웨는 ‘그들을 강탈한 자들’(מְגַבְּלִים)의 생명을 똑같이 ‘강탈하는’(מְגַבְּלִים)는 방식으로 대갓아 주신다(23b절). 이때 ‘강탈하다’(מְגַבְּלִים) 동사를 완료형과 분사형태로 반복한다. 즉 אֶת־מְגַבְּלִים אֶת־מְגַבְּלִים(베헤카바 에트-코베햄/그가 그들을 강탈한 자들을 강탈하신다)은 엄격한 처벌과 함께 약자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야웨의 행동을 강조한다(참조. 23:11; 시 146:7-9). 이는 야웨의 정의 실현에 대한 믿음의 표시다. 이처럼 믿음과 희망이 결속된 금언은 왈키의 해석처럼, 이 땅의 법정이 성문에서 실패할 때, 하늘 법정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수가 있을 것을 예고하는 하나님의 법과 신탁의 외침을 반영한다(출 22:22-24; 사 1:23-24; 10:2; 렘 5:28-29; 암 2:6; 4:1;

5:12; 미 3:11 등).⁴⁴

누구도 최종적인 복수가 실행되는 그날을 알 수 없지만, 야웨는 가난한 자의 보호자이며 변호인으로서 모든 사람의 생명과 죽음의 권세를 가진 분이다. 옛 지혜 교훈은 '강탈당한' 자에게 야웨만을 최고의 인권 변호사처럼 제시하여 가난하고 착취당하는 자의 존엄성과 권리를 적극 옹호한다. 이처럼 고대사회의 지혜 정신은 보프가 제시한 사회 생태학 측면에서 꺾이고 상처 입은 이들과 함께하며 연대와 자비를 세계화하는⁴⁵ 희망이다. 이것은 또한 현대사회의 시장, 생산, 소비, 축적, 재화의 분배 과정에서 지구 공동체의 상호연결을 옹호하는 우주적 연민의 토대이며 원리로서 생태 정의 회복을 위한 동력이 된다.

3) 생태적 전환을 위한 급진적 대안의 삶

그러면 생태 위기 가속화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 해소는 어떻게 가능한가? 잠언 30장의 아구르의 기도는 생태 위기를 불러온 인류의 탐욕을 급진적으로 재고하라는 목소리로 들린다. “세계 종교들 가운데 ‘탐욕스러운 자는 복이 있다’고 가르치는 종교는 하나도 없다.”⁴⁶ 생태학적인 맥락에서 아구르의 기도는 지구의 모든 식구들의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에 대한 각성과 비판적 성찰로 안내한다. 이 기도는 별도의 표제를 붙인 ‘야케의 아들 아구르의 말’⁴⁷로서 동기를 덧붙인 간구다. 아구르는 신비에 쌓인 존재다.⁴⁸ 특히 이를

44 Waltke, *The Book of Proverbs: Chapters 15-31*, 232.

45 보프, 『생태신학』, 153.

46 맥페이그, 『기후 변화와 신학의 재구성』, 127. 맥페이그는 그의 책, 5장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질문하며 “그리스도교와 지구별의 경제”를 별도 항목으로 다뤘다(127-154쪽).

47 “아굴의 잠언”(개역개정)에 이어 예언서의 전문용어 ‘신탁의 말씀’에 해당하는 אָמַר אֲגוּרִי가 뒤따른다. 보통 황홀경 상태의 예언자를 묘사할 때 ‘네움’이 사용된다(삼하23:1; 시36:1; 민24:3). 이는 지혜역시 신적 계시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밝힌 셈이다. Duane A. Garrett, *Proverbs Ecclesiastes Song of Songs* (NAC; Nashville: Broadman, 1993), 236.

‘아구르’(אגור)는 ‘나는 체류자’ 또는 ‘나는 나그네’라는 뜻일 수 있는데,⁴⁹ 나그네의 심상은 이 땅에 잠깐 머물다 떠나는 덧없는 인간 존재 또는 여행자의 삶을 사는 인류의 본질 곁으로 초대한다. 그렇게 인류의 본질을 품은 이름, 아구르의 기도는 매우 독특하다.

두 가지를 내가 당신께 구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게서 거절하지 마소서(30:7).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게 해주소서.

나를 가난하지도 부하지도 않게 하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30:8).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배불러서

‘야웨가 누구인가’, 말할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까 합니다(30:9)

아구르는 가장 먼저, 공허하고 거짓된 말을 멀리할 수 있기를 간구한다. 둘째, 부하지도 가난하지도 않고 꼭 필요한 양식으로 만족하게 해달라고 청한다(8절). “오직 필요한 양식”을 뜻하는 אֵלֶּךָ אֲכָלְךָ(레헴 혹키/나의 제한된 빵)를 요청하는 이유는 만족스러울 정도로 충분한 부와 도둑질할 정도의 극단적 가난이 가져올 위험성 때문이다. 8c절,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

48 칠십인역에서 아굴의 잠언이 24:22 이후에 등장하는데, 신적 영감을 받은 저자가 독자의 이름, 이디엘과 우갈을 언급한다. 아구르는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는다. 해석자들은, 아구르를 역사적 인물이기 보다는 신탁을 위해 꾸며낸 허구적인 인물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 다후드는 본문 배후에 있는 고유한 이름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번역했다. ‘사람의 말, 리디엘과 우갈’ 또 다른 대안으로, “오 하나님, 나는 지쳐서 고갈되었습니다.”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Garrett, *Proverbs*, 236을 보라.

49 다른 나라에 거주하거나 이민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을 뜻할 수 있다(룻 1:1; 왕하 8:2; 시 105:23).

서”는 문자적으로 ‘제한된 음식을 나로 즐기게 하소서’이다. 이것은 구약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는 표현이다.⁵⁰ 제한된 양식 안에서 즐기는 매우 역설적인 방식은 절제하는 삶을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킨다.

이것은 옛적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 중에서 하루에 꼭 필요한 양식만 허락되었던 때를 떠올리게 한다.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둘 때 누구도 부족함이 없었다(출 16:17-18). 월터 브루그만의 말처럼, 이집트에서는 불가능했지만 광야에서는 가능했던 광경이다. 이것이 풍요로운 세계로 행진하는 도정이었던⁵¹ 것처럼, 아구르의 기도역시 마찬가지다. 지금도 실험 가능한 도전적인 삶을 위한 기도다. 이와 같은 삶이 하나님의 언약 동반자로서 사는 길로 제시되었다.

잠언이 말의 절제와 합당한 말의 아름다움을 자주 강조하듯, 가난과 부에 대한 관점도 마찬가지다. 마지막으로 아구르는 과도한 부유함이나 극단적인 가난 때문에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되거나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염려했다(9절). 이것은 극단적 상황이 가져올 신앙적이고 도덕적인 흠집을 경계한 말이다. 채소밖에 먹지 못해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면서 중요하며 사는 것보다 낫다(15:17)는 교훈도 마찬가지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고대 지혜자 코헬렛도(전 12:9) יִתְרוֹן(이트론/이득, 잉여)을 문제 삼으며 넘침을 경계하는 질문을 제기하고(3:9; 참고. 1:3; 2:13), 돈과 풍요를 좇으며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을 꼬집어 부자의 풍요로움에 의문을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이 소유하려는 과잉의 덧없음을 논했다(전 5:10-16).

더욱이 이스라엘 왕정 역사에서 정치적 욕망의 상징인 솔로몬의 권력과

50 “두려워함이니이다”는 66절처럼 ‘...하지 않도록’ 또는 ‘그렇지 않으면’을 뜻하는 접속사다. 9절은 문자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내가...내가...내가 말할 것입니다. “누가 여호와시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난하게 되어...내가...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지 모릅니다.’이다. 유달리 1인칭 서술방식이 반복되는 고백적인 시행이 진실성을 돋보이게 한다.

51 브루그만, 『하나님, 이웃, 제국』, 261.

어마어마한 부의 축적은 압제하는 왕의 표상이다. 그의 이름 ‘셀로모’ (מלכֹם) 답지 않게 복지와 평화, 곧 ‘샬롬’은 위태로웠다. 솔로몬을 연상하도록 솔로몬 전통을 패러디한 막대한 부의 허구성과 부조리를 이웃하는 전도서가 똑똑히 제시했다(전 2:7-11).⁵² 적게 가졌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엄청난 보물을 가졌으나 번뇌가 많은 것보다 좋다(잠 15:16)는 교훈도 과도한 부를 경계시킨다. 이 금언에 대해 루디거 룩스(Rüdiger Lux)는 열병처럼 번지는 부가가치 창출과 성장에 집착하는 욕심을 꼬집으며 적절한 수준과 절제의 윤리와 능력이 사라질 때, 삶이 위험해진다고 해석했다.⁵³ 실제로 우리 사회는 ‘부가 빈곤을 낳는’ 근현대 사회의 역설처럼, 위험에 처해있다. 또한 이반 일리치(Ivan Illich)의 말처럼, 현대사회는 오로지 상품과 화폐로 필요를 채우기 때문에 여기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은 원천적으로 필요를 충족하지 못한다.⁵⁴

제왕적 권력이나 현대사회의 집중된 부는 타인의 불행위에 구축되곤 한다. 어떤 형태든 타인의 가난과 고통을 담보한 부유함은 상호연결을 끊고 지구 공동체의 파트너 관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창조질서를 위반하는 일이며, 생태 정의에 어긋난다. 특히 지금 우리가 직면한 기후 변화와 생태 위기는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을 바꾸고 다른 삶을 선택하도록 일깨우고 있다. 이러한 사회 맥락에서 지혜와 의로움의 기계적인 보상의 파열음처럼 들리는 아구르의 기도는 가난을 알보고 과잉의 부를 추구하는 사회와 신앙인에게 공동체성을 살려내라는 도전이다. 지금 우리사회는 자연의 혜택이나 긴밀한 상호관계에 따른 상호부조에 의해 가난을 견딜만한 세상이 아니다. 더군다나 기후 위기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자연재해 급증은 가난한 사람을 더 궁핍

52 솔로몬을 연상시키는 전도서 본문 해설은 김순영, 『일상의 신학, 전도서』, 166-167을 참고하라.

53 루디거 룩스, 『이스라엘의 지혜』 구자용 옮김 (파주: 한국학술정보, 2012), 238. 원제는 Rüdiger Lux, *Die Weisen Israels* (Berlin: Evangelische Verlagsanstalt, 1992).

54 이반 일리치 외, 『전문가들의 사회』 신수열 옮김 (서울: 사월의 책, 2017), 16. 원제는 Ivan Illich, *Disabling Professions* (London: Marion Boyars, 1977).

하게 만든다. 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자연 환경과 사회뿐 아니라 우리 자신, 즉 인간의 내적 생태계까지 얼마나 변질시켰는지 전혀 깨닫지 못한다.”⁵⁵ 이 일침을 수용하면서, 다른 동료 인간을 착취하지 않고 욕망을 제한하는 절제의 삶은 시대를 향한 거룩한 저항이다.

지금의 기후 위기와 생태 위기는 지구 공동체의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도록 요구리를 찌르고 어떻게 살 것인지 질문하게 했다. 생태 정의를 위한 노동과 공생, 형제애로 구현되는 ‘상호연결’ 원칙과 아구르의 기도는 무한 욕망을 절제하도록 각성시키고 해독시키는 지혜다. 우리는 더 많이 가지려는 탐욕과 필요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제한된 양식을 구하며 절제와 과잉 추구를 피하는 삶은 무차별적인 무한 경쟁 사회에 제동을 거는 생태적 전환을 위한 지혜가 된다. 이것은 또한 ‘오직 하루 양식을 구하라’(마 6:11)는 메시아 예수의 급진적 가르침과 만난다.

4. 나가는 말

생태 위기와 코로나 대유행은 인간, 자연, 물질을 대하는 생각과 행동의 총체적인 변화, 곧 우리 삶의 ‘대전환’을 요구한다. 이 거대한 재설정의 시점에서 누구도 고립된 채 살 수 없고, 모두 연결되었다는 생태적으로 각성된 주체들의 정의로운 활동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생태 정의를 가로막는 것은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과 탐욕이다. 이것은 경제 성장에 대한 병적인 집착을 낳는다. 남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축적하려는 탐욕은 사회 갈등의 원인이다.

55 룩스, 『이스라엘의 지혜』, 238.

이것은 능력주의를 숭배하는 무한 경쟁으로 이어지고, 필연적으로 불공정한 분배와 사회적 불평등을 낳는다. 특히 옛 지혜 정신은 경제적 불공정에 침묵하지 않는다. 따라서 생태 위기 현실에서 급격히 증가한 이 시대 플랫폼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과 구약 잠언에 소개된 불공정한 경제활동에 대한 경고성 교훈들을 살펴보았듯(11:1; 16:11; 20:14 등), 우리 삶은 생태 정의에 입각한 경제 정의 실천을 요구받는다.

구약 잠언의 옛 지혜가 창조질서 흐름에 따라 일상을 아름답게 도덕적인 질서로 채우는 것에 가치를 둔 것처럼, 정의는 인간의 존엄성 보호와 행복한 공존을 위한 윤리적 올바름을 넘어 하나님께서 기획하신 인간 구원의 원천이다(사 45:21). 모든 정의는 생태적이며 경제는 생태와 분리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라는 측면과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지혜의 만남을 통해 전환의 길을 모색했다. 잠언의 지혜는 생명의 창조자이며 보존자이신 하나님과 인류의 동반자적 관계성을 중시한다. 때문에 잠언은 누구도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창조자의 영화로움과 가난을 연결하여 인간 존엄성 문제로 인식하고 비판적으로 다뤘다(14:31; 22:22-23). 무엇보다 극단적인 부의 쏠림과 불평등이 심화된 사회의 현실적인 구원 맥락에서 아구르의 기도(30:7-9)는 공생공락을 위한 지혜이며 생태적 전환을 위한 급진적인 대안이다. 아구르의 기도가 누군가에게는 낭만적 이상주의처럼 보일 수 있지만, 부를 향한 과도한 열망과 경제적 불평등의 굴레 사이에서 적절한 처방이 될 수 있다. 아니, 그 이상이다. 왜냐하면 아구르의 기도는 현대 사회의 과잉 생산과 소비, 탐욕적인 축적을 옹호하지 않으며, 오늘 ‘필요한’(‘제한된’) 양식과 자산에 만족하는 삶을 지혜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생태 재난(폭우, 폭염, 산불)이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는 현 시점에서 경제적 불평등은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다. 연대의 힘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 각자도생의 살벌한 현실에서 가난한 자를 탈취하지 않는 지혜 정신

(22:22-23)과 아구르의 기도(30:7-9)는 너무 사소해 보이지만 탐욕을 제어하는 저항이며 창조 질서에 융합하는 생태적 삶을 위한 전환의 길이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는다(28:27)는 소유와 나눔의 역설처럼,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고 자유롭게 나누는 자가 더 많이 얻는다(11:24)는 진리의 역설처럼, 아구르 기도를 비롯한 지혜 잠언들은 지구공동체에게 약자를 착취하거나 억압하지 않고 우주적 연민을 촉구하는 매우 소박하지만, 혁신적인 대안이다. 그러므로 선별한 잠언은 생태 정의로 향하는 ‘우주적 연민’과 ‘상호연결’을 실천하는 근거로서 생태적 전환을 향한 또 하나의 길이다.

참고문헌

- 김순영, 『일상의 신학, 전도서』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9).
- 박성원, “경제와 생태정의를 위한 계약-세계개혁교회연맹(WARC)의 경제정의를 위한 신앙고백을 중심으로”, 『신학과 목회』 24 (2005), 236-257.
- 조영호, “기후 위기, 윤리 그리고 교회”, 『생태 위기와 기독교』 (비블로스생명인문학시리즈; 과주: 한국학술정보, 2021).
- 조용현, “도덕적 행위자로 기능하는 잠언의 אִשְׁרָאֵל(아쉬르/부자)”, 『구약논단』 74 (2019), 108-135.
- 레오나르도 보프, 『생태신학』 (김향섭 옮김), (서울: 카톨릭출판사, 2013). 원제 Boff, Leonardo., *Ecologia Mundlização Espiritualidade* (São Paulo: Editora Atica, 1993).
- 롤란드 퍼피, 『잠언』 (박문재 옮김), (WBC: 서울: 솔로몬, 2001). 원제 Murphy E. Roland., *Proverbs* (WBC: Nashville: Thomas Nelson, 1998).
- 뤼디거 룩스, 『이스라엘의 지혜』 (구자용 옮김), (과주: 한국학술정보, 2012). 원제 Lux, Rüdiger., *Die Weisen Israels* (Berlin: Evangelische Verlagsanstalt, 1992).
- 리처드 클리포드, 『지혜서』 (안근조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5). 원제 Clifford, Richard J., *The Wisdom Literature* (Nashville: Abingdon Press, 1998).

- 마버라 에런라이크, 『노동의 배신』 (최희본 옮김), (서울: 부키, 2012). 원제 Ehrenreich, Barbara., *Nickel and Dimed : On Getting By America* (London: Picador, 2011).
- 샬리 맥페이그, 『기후변화와 신학의 재구성』 (김준우 옮김), (서울: 한국기독교연구소, 2008). 원제 McFague, Sallie., *A New Climate for Theology: God, and the World, and the Global Warming* (Minneapolis: Fortress, 2008).
- 월터 브루그만, 『하나님, 이웃, 제국: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동선 창조』 (윤상필 옮김), (서울: 성서유니온, 2016). Brueggemann, Walter., *God, Neighbor, Empire: The Excess of Divine Fidelity and the Command of Common Good* (Waco: Baylor University Press, 2016).
- _____, “구약신학의 틀 II: 고통의 포용”, 『기독교사상』 37 (1993), 114-130.
- 이반 일리치 외, 『전문가들의 사회』 (신수열 옮김), (서울: 사월의 책, 2017). 원제 Illich, Ivan., *Disabling Professions* (London: Marion Boyars, 1977).
- 이반 일리치, 『그림자 노동』 (노승영 옮김), (서울: 사월의 책, 2015). 원제 Illich, Ivan., *Shadow Work* (London: Marion Boyars, 1981).
- 정호승, 『슬픔이 기쁨에게』 창비시선 19 (서울: 창비, 2014).
- 제임스 L. 크렌쇼, 『구약지혜문학의 이해』 (강성열 옮김),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 원제 Chrenshaw, James L., *Old Testament Wisdom: an Introduction*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81).
- 한동구, “잡언의 지혜신학에 반영된 ‘공정한 사회의 이념’”, 『구약논단』 41 (2011), 12-33.
- Brown, F., Driver S. R., & Briggs, C. A. *The New Brown, Driver, Briggs, Gesenius Hebrew and English Lexicon: With an Appendix Containing the Biblical Aramaic*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1979).
- Conradie, Ernst., “Toward an Eccological Biblical Hermeneutics: A Review Essay on the Earth Bible Project,” *Scriptura* 85 (2004), 123-135.
- Garrett, Duane A., *Proverbs Ecclesiastes Song of Songs* (NAC: Nashville: Broadman, 1993).
- Habel, Norman., “The Earth Bible Project”, *Journal of Religion, Nature & the Envi-*

ronment 99 (1999), 123-124.

Habel, Norman., “Guiding Ecojustice Principles”, *Spiritans Horizons* 11 (2016), 92-109.

Lind, Christopher., “Ecojustice: What is it and Why Does It Matter?”, in *Synod of the Diocese of Niagara* (2007), 1-18

Longman III, Tremper., *Proverbs* (BCOT;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6).

Lucas, Ernest C., *Proverbs* (Grand Rapids: Eerdmans, 2015).

Waltke, Bruce., *The Book of Proverbs: Chapters 1-15* (NICOT; Grand Rapids: Eerdmans, 2004).

Wink, Walter., “Ecobible: The Bible and Ecojustice,” *Theology Today* 49 (1993), 465-477.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78609.html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121108564659544.html>

검색어

잠언

가난

생태 정의

생태적 전환

불평등

The Wisdom of the Book of Proverbs for the Ecological Transformation of Unequal Society

Soon-Young Kim

Biblos Institute of Bible and Humanities

This paper explores ecological wisdom in the book of Proverbs. It aims to find ways to cope with the crises of ecological inequality and to present awakening and alternatives toward ecological transformation. Sociologist Ulrich Beck noted that it is impossible to identify the climate crisis without considering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social inequality. He also pointed out that the climate crisis deepens inequality between the poor and the rich, the center and the periphery. A clear example of this economic imbalance is growing rapidly with the COVID-19 pandemic. Above all, the rise of platform labor, which has changed dominant patterns of economic activity, is creating

www.kci.go.kr

an unfair “risk society” by mass-producing more “transparent workers” next to us. Thus this paper is an attempt to respond to this reality from a biblical perspective.

The book of Proverbs is a repository of wisdom that penetrates the principles of natural order and the reality of human life. The discussion is based on Leonardo Boff’s view of social ecology and an ecological ethic aimed at balancing the global community, which combines labor, symbiosis, friendship, justice, and solidarity. The paper also considers the “interconnectedness” principle among the six “ecological principles” of the Earth Bible Project and justice for the Earth.

First, the chosen texts serve as an awakening agent to confront and detoxify the indiscriminate marketism and inequality of modern society. The texts discuss the practical dimensions of fair economic activity and participation (Prov. 11:11; 20:10; 20:14), the twisted relationship between hard work and wealth (13:23), and the issue of laziness and poverty (6:6-11). Second, the selected proverbs are suggestions for reflecting on unequal society, ecological justice, and the path to ecological transformation. Life is harder on the poor (10:15; 19:7), but the proverbs that emphasize the dignity of the poor and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14:31; 22:22-23) can serve as guidelines for restoring ecological justice. Finally, Agur’s prayer (30:7-9) warns against the greed of humankind, which has led to our ecological crisis. The spirit of the wisdom not to seize the weak (22:22) and the prayer of Aghur might seem trivial and fragile, but they are guides for resistance and innovation that control greed. The paradoxical way of life that is satisfied with a simple lifestyle sublimates into religious beauty and becomes the wisdom of symbiosis and communal enjoyment.

Keywords

the book of proverbs

ecological transformation

eco-justice

poverty

Inequality

- 투고일: 2021년 6월 24일
- 심사일: 2021년 7월 16일
- 게재 확정일: 2021년 8월 17일

www.kci.go.kr